#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

## 전주시, e편한세상우아 · 효천리버클래스 · 효천우미린2차 · 에코시티더샵3차 등 4곳서 운영… 내년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심으로 11개소 개원 추진

전주시는 10일 e편한세상우아, 효천리버클래스, 효천지구우미린더프레스티지, 에코시티 더샵3차 등 공동주택 4곳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10일 e편한세상우아, 효천리버클래스, 효천지구우미린더프레스티지, 에코시티 더샵3차 등 공동주택 4곳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올 하반기 개원한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12블럭과 전주반월(2) 공동주택 3개소를 포함해 총 2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협약을 마친 어린이집 4곳에 내년 2월 말까지 총사업비 4억8,0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한다. 또 이달 안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설명회를 갖고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사업이 민선7기 공약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11개소 개원을 추진, 오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야간 연장보육(저녁 7시 30분 이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더불어 교사의 이직이 낮아 환경 변화에 민감한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하는 동시에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다함께돌봄센터도 내년에 9개소를 늘릴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등 돌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세계인권선언일 맞아 '전주시 인권주간 기념행사' 개최

## 지방정부 인권 기구 현황 ·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 좌담회 · 북토크 등 진행

전주시는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0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2020 전주시 인권주간 기념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2회째를 맞은 올해 인권주간 기념행사는 11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인권주간 기념행사는 사회적 약자 인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단 한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로 나아가자는 내용으로 토론회와 좌담회, 북토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앱 줌(ZOOM)과 유튜브(인권도시 전주)를 활용해 이뤄졌으며,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지원됐다.

10일에는 신옥주 전주시 인권위원장을 좌장으로 지방정부 인권 기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펼쳐졌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지영 전주시 인권담당관실 인권옹호관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지방정부 인권옴부즈퍼슨 제도 개선방향과 전주시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또 여성인권보호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인 오늘 오전에는 '디지털시대, 전주지역 성산업의 지형변화'에 대해 좌담회가 이어진다. 좌담회에서는 ▲지역사회 변화된 성착취 산업 실태 ▲여성혐오가 성매매 통념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을 매개로 한 10대 성착취 실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인권의 시선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해 나가기 위한 북토크와 여:詩 낭독공연도 열린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의미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시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권도시로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소통해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공동체가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 전주시, 내년 총 80개 온두레공동체 육성키로

전주시가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울 온두레공동체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주시가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울 온두레공동체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공동체가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2021년 총 80개의 온두레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내년이면 7년차를 맞는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막연하게 꿈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 온두레공동체는 ▲디딤단계(1년차) 45개 ▲이음단계(2년차) 15개 ▲희망단계(3년차) 5개 ▲아파트공동체 10개 ▲예비 마을계획추진단 5개 등이 운영된다. 올해와 달리 예비 마을계획추진단 부문이 추가됐다. 이는 마을계획 수립사업 이전에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됐다.

또 디딤단계가 '마을공동체'와 '창업공동체'로 나뉘었던 것과는 달리 '마을공동체'와 '소규모공동체'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는 창업분야보다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됐다.

마을공동체는 동일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주시민 15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공동체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주시민 5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음단계는 디딤단계를 완료한 공동체가, 희망단계는 이음단계를 완료한 공동체 중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성이 확실한 공동체가, 아파트 공동체는 동일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온두레공동체에는 신청 분야별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활동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내년도 온두레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공간 활성화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다양한 공동체 육성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강화 등의 중점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일 온두레공동체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에 참여 공동체를 선정, 3월부터 사업비를 교부할 방침이다.

시는 신청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집행방법 등을 경험해보지 못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줄여주기 위해 사전 컨설팅이 지원되는 예비학교도 다음 달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간 운영키로 했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이 빛을 발했으며, 그 주역에는 온두레공동체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공동체가 지역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소나무' 엄마의 밥상에 수제빵 후원

10일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소나무(대표 양인화)' 회원들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지원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수제빵 300개를 만들었다. 엄마의 밥상은 아침밥을 굶는 아동·청소년 300명에게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이날 소나무 공동체 20명의 회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수제빵은 아침 도시락과 함께 각 가정에 배달됐다. 앞서 소나무 공동체는 지난 4월과 7월에도 취약계층과 '엄마의 밥상'에 각각 식빵 500개와 쿠키 2,000개, 수제빵 300개를 기부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주민소통 · 자활복합공간 조성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울 안정적인 일터를 구축한다.

시는 국비 18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구 노송공원(중노송동) 부지 내에 주민소통·자활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시는 기존 1층 건물 위에 4층까지 증축해 연면적 1,332㎡ 규모로 구도심 주민들의 소통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도울 일자리 공간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층에는 올 연말까지 인봉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 편의공간이 들어서며, 4층에는 카페와 공유주방, 다목적실 등 소통공간이 만들어진다. 2층과 3층에서는 HACCP(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준비업체가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된다. 2층에는 농산물 가공·제조 사업장인 '농부맘'이, 3층에는 누룽지 제조 사업장인 '한입푸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공간이 구축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기능을 습득하고 근로기회를 제공받는 등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는 32개 사업단 480여 명에게, 전주지역 자활기업은 14개소 100여 명에게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주민소통·자활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탈 수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